김정렬 차관, “공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”

보령~태안 해저터널 현장점검…안전 사각지대취약요인 즉각 조치 당부

-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(금) 보령~태안 해저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해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했다.
- 공사현장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 김차관은 “도로 공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”이라며, “특히,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만큼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”라고 지시하였다.
- 이번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으며, 안전 사각지대, 취약요인 등 확인된 문제점은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.
- 이어 김차관은 “미세먼지 피해의 최전방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근로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, 적정 휴식시간 제공 등 미세먼지 보호방안에도 만전을 기해달라”라고 하였다.
- 끝으로 김차관은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며 “준공까지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”하였다.
- 한편,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점검으로, 올해는 2월 18일(월)부터 4월 19일(금)까지 추진한다.

2018. 3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